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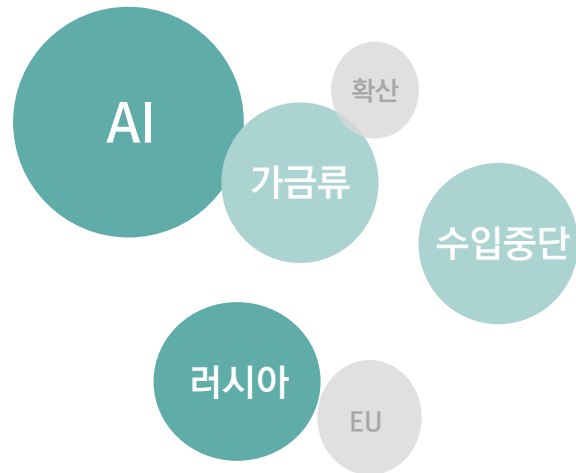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1월 ~ 2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AI, 가금류, 수입 중단, 러시아, 유럽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AI, 가금류, 수입 중단, 러시아, 유럽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러시아, 유럽 22개국 가금류 수입 잠정 중단”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러시아, 유럽 22개국 가금류 수입 잠정 중단

2017년 2월 4일 러시아는 AI확산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유럽연합 22개국으로부터 전 가금류 수입의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EU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유럽 전역에서 AI가 확산됨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조류독감 확산방지를 위해 경계를 유지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조치에 맞서 일부 가금류 품목의 수입을 금지 시켰다. 당시 부화용 달걀과 살아있는 가금류는 수입 제재 목록에서 제외시켰으나, 이번 추가 제재로 모든 가금류의 수입이 중단되었다. 수입 금지령이 내려진 국가는 오스트리아, 영국, 헝가리, 불가리아,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프랑스, 크로아티아, 체코 및 스웨덴이며, 본 금지령은 2주간 지속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EU 위원회 측에 일주일 이내로 AI가 발병했던 지역에서 러시아로 수출되는 가금류의 동물 건강 요건 준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시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는 가금류 수입 금지 기간을 연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對서방 보복조치를 강화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 역시 2017년 초 AI가 유행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對러시아 가금류 수출에 대해서 낙관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은 AI발병이 잦고 진압에 문제가 많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AI예방과 확산방지에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AI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여 가금류 제품의 對러시아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작년 11월부터 유럽 전역에서 AI가 확산됨에 따라 러시아는 유럽 22개국을 상대로 가금류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 이번 금지령은 러시아의 對서방 제재조치 때 수입금지 항목에서 제외되었던 부화용 달걀과 살아있는 가금류까지 전 품목에 해당된다. 2월 6일부터 2주간 발효될 이번 제재는 수입 금지가 된 국가들이 러시아가 요청한 자료를 일주일 이내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연장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본 금지령이 對 서방 보복조치 강화판(版)이라 판단하고 있다.

한국 역시 AI 발병이 잦고 확산이 빠른 만큼 조류독감 예방과 신속한 종식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AI 청정국의 지위를 확보, 한국 가금류 제품의 신뢰도 상승을 꾀하여 對러시아 수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